

신년사 |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

임채만 중환자실장



살다 보면 난감하거나 장황한 설명을 요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속담은 이러한 때에 한 마디의 문장으로 상황들을 간명하게 표현하거나 지혜로운 해석을 부여한다. 속담은 오랜 세월과 경험의 지혜가 응축된 언어적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탐이나 건축물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자주 속담을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의 속담은 농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듣다 보면 그 비유의 적절성에 자주 감탄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어 마치 이마트에서 살 수 없는 시골 장독대의 장을 만나는 느낌도 든다.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다. 아이를 잃어 버렸으니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그런데 아이를 찾고 보니 아이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이 속담은 중요한 물건을 어디 둔지 몰라 한참 찾다가 뜻밖에도 쉬운 곳에서 발견했을 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속담의 잃어버린 '아이'는 물건에 그치지 않는다. 인생의 다른 소중한 것들, 가정과 직장이며 친구가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은 끊임없이 더 좋은 직장을 찾고자 하고, 더 나은 가정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내 등에 업힌 지금의 일, 지금의 동료, 지금의 가정이 내가 노심초사 찾는 그 아이일 수 있는 것이다. 업은 행복 삼년 찾는다고나 할까.

위 속담은 사람이 흔히 빠지는 오류를 지적해 준다. 즉, 아이가 먼 곳, 자기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회귀하는 많은 것이 나의 밖, 즉 환경

속에 있지 않다. 환경과 사람은 내 뜻에 맞추어 주지도 않거나 내가 통제할 수도 없다. 늘 유동적이다. 환경이 좋아서 얻은 행복은 쉽게 흔들린다. 사실 이런 행복은 얻기도 어렵다. 솔로몬 같이 사람들이 꿈꾸는 완벽한 환경을 가졌던 이도 얻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내 등 아닌 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내 안에서 비교의 심리로 작동한다. 비교가 주는 것은 자만이거나 열등감이다. 둘 다 등에 업고 있는 아이를 잃게 만들 뿐이다.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다. 동서고금 많은 현자들이 동의하는 진리이다. 이 행복에 대한 인식을 다른 말로 '긍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긍정의 외적인 표현이 '감사'이다. 환경이 좋아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환경이 내게 후호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본성적인 것이라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하는 바가 충족되어 나오는 감사는 그렇지 못할 때 원망으로 변한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유명한 방송인이 TED 강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주제는 '일년 동안 Yes 하기'였다. 아이의 요구에든 상사의 명령에든 무조건 예라고 하다 보니 버겁고 형클어졌던 삶이 오히려 정돈되고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새해이다.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양력으로 한번, 음력으로 또 한번 인사를 나누니 우리가 주고 받는 축복은 서양 사람들의 두 배나 된다. 내가 애ต่게 찾고자 하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 진실은, 아이는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긍정은 이미 내 등에 업힌 행복을 알게 해준다. 올해 우리도 'Yes 하기'를 해보면 어떨까.

ICU News

<p>MICU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이동 : 배수진 간호사 배치 (1/1) 치장(2급) 승진 : 박윤하 대리(4급) 승진 : 배수진 우수직원 수상 : 김보라 12월 베스트 전공의 : 현준호 Duty CN 모임 (1/19) 인턴십 (1, 2차) 	<p>MICU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독립 (1/10) : 이소영, 차기연 과장(3급) 승진 : 박이경 대리(4급) 승진 : 김보라 복직 : 이경아 (1/1) 결혼 : 임윤주 (1/15) 상휴 : 조원정 (2/1~5/1) 	<p>SICU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간달회 (1/6) : 강찬a grade 대리(4급) 승진 : 강소희 강동한마음 봉사 (1/17) 인턴십 : 최 (1/9~10), 조 (1/16~20) N95 마스크 밀착도 검사 (1/4~16) SCCM (Americ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참석: 홍서영, 강태현 교수 (1/20~27) 	<p>SICU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과중환자실포지움 회의 : 매주 월요일 과장(3급) 승진 : 조희주 우수직원 수상 : 박혜정 부서 이동자 환영식 및 송별식 (1/23) 윤영계획 회의 (1/10) 부서이동 : 박유철 (SICU2 → 건강관리센터) 														
<p>NSI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4급) 승진 : 안지영, 이민금 	<p>CSI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직원 수상 : 차세진 	<p>PICU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4급) 승진 : 유선영 우수직원 수상 : 강지현 	<p>A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U 고도격리응급실 완성 후 서관 층 이사 (12/30) 부서이동 : 양현주 (ER → ACU) 병상수 조정 (1/2) : 10 bed → 9 bed AMIS 3.0 실무책임자교육 : 이하나 (1/3~4), 강영현 (1/5~6) 2017년 프리젠테이션 임명 (1/4) : 박은정, 최선화 동군산중환자실 사설팀 음압실 tour (1/6) 한양대학교 응급의료센터 벤치마킹 (1/7) Artic sun 5000 장비 추가 입고 (1/9) 신규 독립 : 서만기 (1/10) 														
<p>NRI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장(2급) 승진 : 김효진 UM 대리(4급) 승진 : 권지혜, 이서정 우수직원 수상 : 강현경, 안서영 부서 이동 : 이서정 간호사 (MICU2 → NRICU) 김향경 간호사 (SICU1 → NRICU) 김은기 조무원 (MICU1 → NRICU) 행복나누기 봉사 (1/16) : 김민지, 김소희 	<p>C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임 CCU UM : 김문희 UM (1/1) 치장(2급) 승진 : 김문희 UM 과장(3급) 승진 : 오성희 대리(4급) 승진 : 김진희 우수직원 수상 : 이경아 2015년 입사자 동기여행 (1/18~19) 2016년 입사자 동기여행 (1/6~7) 신규 독립 : 이상아 (1/11) CCU 윤영계획 라더 모임 (1/3) 	<p>PICU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장(3급) 승진 : 김보경 대리(4급) 승진 : 노민정, 윤미진 우수직원 수상 : 임은영 	<p>M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4급) 승진 : 정현경 심폐소생술 위원회 (1/10) : 이진미, 신유정 RRS 연구회 (1/18) : 이진이 MAT Retreat (1/25) 														
<p>NICU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임 NICU1 UM : 임승복 UM (1/1) 대리(4급) 승진 : 이가영, 이서영 우수직원 수상 : 김사라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임 중환자간호팀장 : 김순희 팀장 (1/1) 신임 소아청소년간호팀장 : 이서희 팀장 (1/1) 	<p>RT</p> <table border="1"> <tr> <th>담당부서</th> <th>담당자</th> <th>연락처</th> <th>사무실</th> </tr> <tr> <td>MICU1/ACU/동관ICU</td> <td>서기진</td> <td>886241</td> <td rowspan="3">T.6244</td> </tr> <tr> <td>MICU2/SICU1-2</td> <td>김은영</td> <td>886242</td> </tr> <tr> <td>일반병동</td> <td>서희정</td> <td>886244</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직원 수상 : 서기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동관ICU	서기진	886241	T.6244	MICU2/SICU1-2	김은영	886242	일반병동	서희정	886244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동관ICU	서기진	886241	T.6244														
MICU2/SICU1-2	김은영	886242															
일반병동	서희정	886244															

중환자간호팀장 송별사

임은옥 UM (MICU2)



지난 4년간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아이디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중환자간호팀을 이끌어 주신 이순행 팀장님의 송별사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얼떨떨했던 팀장님과의 이별을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드리면 많은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 어린 지도의 말씀으로 자극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일이 많아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팀장님의 열정에 힘입어 이루어낸 중환자간호팀의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지난 추억을 돌아보며 많이 배우고 성장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재미있게 즐길 줄도 아시는 팀장님 덕분에 문화와 예술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겁게 해주신 팀장님을 기억합니다. 연예인 버금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교회에 헌신,

봉사하시는 부지런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팀장님을 기억합니다.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시고 드라마와 드라마 속의 꽃미남을 좋아하시는 항상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신 팀장님을 기억합니다.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정돈되고 힘있는 말씀과 여러 편의 시집을 출판하신 풍부한 감성의 영향을 받아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도 배웠습니다. 처음에 어렵지만 했던 팀장님이 이제 편한 선배로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고 속내를 보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졌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정하게 알려주시던 귀한 말씀은 귀에 담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따뜻한 베풀은 마음에 담겠습니다. PIT에 가서서도 더욱더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팀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 시냇물처럼 나는 저 물처럼 흘러가리라
바위에 부딪히면 빗겨 흐르고
조약돌을 만나면 밀어도 보고
마른 땅 만나면 적셔도 주고
페인 곳 만나면 채워 주고 가리라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행복하세요. 늘
용감하세요. 모든 일에
솔직하세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항상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노력하세요. 살아있는 날까지
진실하세요. 언제나까지나
순수하세요. 더 없이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를..

2016. 12. 28 임은옥 드림

중환자실을 떠나며

이순행 전중환자간호팀장 (PIT)



타닥 타닥 타닥...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을 계속 간지르고 있다. 가끔은 서로 의논하거나 보고하는 소리도 들리고, 프린트 물을 가지러 다가오는 소리, 물을 마시러 오가는 발소리 등이 하루를 채우는 곳! 이곳은 서울아산병원 P실이다. 이곳에서 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팀장으로 임무를 명받아 오게 되었다. 이곳에 오게 된 느낌을 굳이 말하자면, 신나게 목표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발을 걸어 온 느낌이었다. 그래서 중환자실 가족들과 제대로 이별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다.ㅠㅠ 하지만 감성적인 생각에 빠진 채로 멈춰 있을 시간이 없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진료의 표준화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이곳에 내가 과연 어울리거나 한 걸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동안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버렸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엄청난 사업들을 짧은 시간에 인계 받고, 기능이 많이 떨어진 머릿속 정리를 하느라 초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다. ㅎㅎ

5일째 되는 아침!

창으로 밀려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마치 이 일을 한 번 해보라고 하늘이 보내주는 싸인 같았다. 마구 응원하며 축복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몰입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며 맡겨진 업무를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팀원들의 활기찬 모습도 눈에 들어오면서 더 든든하게 느껴졌다.

방에서 수첩 하나 들고 중환자실 복도를 오가며... 오늘도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고 우리 중환자간호팀 직원들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애매한 소리 듣지 않고 즐거이 일할 수 있기를 수없이 기도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출근하면 승판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 3층을 누르려고 하고, 출입문만 보면 명찰을 잡아 인증 받으려 하고 있고, 월요일 오전 11시만 되면 실장님과 회의를 하기 위해 달려가야 할 것 같아 잠깐 멈춰 서기도 한다. 그리 긴

세월은 아니었어도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중환자실의 흔적을 지우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펼쳐질 일들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어찌 보면 평생을 간호사로 살면서 P실에서 일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하늘이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중환자실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원고를 요청 받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중환자실에서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스치듯 지나가는 팀장을 향해 큰 미소를 보여주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던 직원들과, 본인들이 요청했던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될 때 마다 감사인사를 더 크게 해주었던 직원들, 혹여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해 주었던 직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모두가 정말 고맙고 따뜻했던 동료였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분초를 다투며 변화하는 환자들의 상태에 늘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달려가 무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중환자실 식구들을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만 중환자실장님이 계시고, 어떤 어려운 숙제가 떨어져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서울아산병원의 에이스들만으로 구성된 수간호사님들이 포진하여 있고, 거기에 새로이 중환자간호팀을 맡게 되신 김순희 팀장님이 번뜩이는 많은 아이디어로 남겨놓은 여러 숙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나온 이곳에서도 중환자간호팀을 좀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며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동안 많은 사랑을 해주신 임채만 실장님 이하 모든 중환자실 가족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올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모자람이 많은 팀장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순행 드림

지호씨의 그린 라이트 | 깡이

이지호 간호사 (MICU1)



할머니의 언어 사전에서 '깡이'는 갓난쟁이와 어린이 사이의 단계의 유아를 일컫는데 바로 내가 소싯적에 깡이라 불렸지. 어렸을 때 잠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었거든. 자주 묶은 변을 지러서 아예 밀이 터진 빨간 바지를 입고 저수지 독을 그렇게 오갔다는데 그토록 부끄러움도 모르던 내가 이렇게 커피를 달고 살 줄은 몰랐겠지. 어른들 따라 달각거리는 커피잔에 담긴 검은 액체를 맛보며 아무리 맛있는 척을 하려 해도 쓰기만 했었어. 대신 밥 숟가락으로 다섯 스푼씩 프림과 설탕을 가득 넣은 해괴한 액체를 따끈한 우유인양 홀짝거렸었는데. 알고 보니 나만 그런 건 아녘고 내 나이 또래 애들은 다 그랬대. 199X년에 태어난 깡이들은 모를 거야. 미안. 어쨌든 지금은 카페인의 소중함과 그것을 품고 있는 커피의 향미를 오롯이 이해한지 꽤 되었어. 시나브로.

언젠가는 오사카를 가도, 동네 마실을 가도, 등산을 해도 뒷산에 산책을 가도, 현란한 등산복만 추구장창 입어대는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등산복은 땀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밖으로 밀어내어 쾌적함을 유지하는 재질이라 근처에 가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나. 말하자면 땀을 안으로 품는 면이 아니라 대기에 노폐물을 흩뿌리고 다니는 거지. 오전에 등산을 하고 오후에 막걸리를 들이붓고 하산하는 중년 그룹을 전철에서 마주친다면 코를 막아 주는 게 좋아. 지리내 수준으로 악취가 난다고 하지만 이걸 누굴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등산이 나쁜 것도 아니고 등산복이 범죄도 아니며, 단체로 전철 타는 게 뭐가 어때서. 다만 내뿜는 냄새가 싫을 뿐이고 하나 추가하자면 등산해서 다리 아프다고 전철 바닥에 주저 앉아 술주정을 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그렇게 관절이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것을 추천해). 등산복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다만 세상에서 태어나서 멋진 등산복을 본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나만큼은 절대 등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이쯤 되면 내가 '등산복애용중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등산복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보온성과 흡습성의 과학이 밀집된 어찌고 저찌고 나도 알아. 근데 내 눈엔 구린 걸 어떡해. 그래서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이해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등산복을 애용하시는 분들도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취향의 문제이며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거지. 범범나 반도덕적 행위 혹은 생명이 달린 부분만 아니라면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 정도면 매우 충분한 문제인 셈이야.

머리로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열린 태도라고 생각해. 적어도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네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닌데다가 나라면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뜻을 한껏 내뿜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훗날 화석 같은 끈대가 될 확률이 극히 적지.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의 의중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 박박 무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박물관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쓱쓱 지나가는데 혼자 그대로 굳는 거지. 논리 같은 건 없어. 그저 싫으니까 틀린 거야.

사실 고백하자면 나도 어떤 부분은 말도 안 되게 콧 박힌 부분이 있지. 누구나 그럴 거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말이 행하게 터진 바지를 입고 파란 잡초가 무성했던 독을 쿵에 땀나게 뛰어 다녔던 언젠가처럼 깡이 시절처럼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언젠가는 와 닿는 날이 있겠지. 스무 살 적에 따뜻한 커피를 시작했고 스물다섯 쯤부터 차가운 맥주도 즐겨 마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어느새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 편을 즐기기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직 위스키는 구역질이나. 자그마한 잔에 아주 우아하게 황금빛으로 유혹하는 그 화합물은 정작 목구멍을 지나면서부터 강한 소독약 일 뿐이야. 마시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보기엔 나는 아직 깡이인 거야. 웃긴 건 뭘 줄 알아? 저 사람들 지금 등산복 입고 있다는 거야.

마음을 전하는 책

새해를 맞이하는 아침에 친한 친구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이었다. 평소 간결한 걸 좋아하는 나로서는 반가운 마음이었다. 공간이든 머릿속이든 죽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정리 된 후의 여백을 더 좋아하는데 그 것이 나에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책 선물을 한 박혜정이라는 친구는 예전에 팀 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 내고 있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위원회 활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고민할 때 '일의 목적은 이것일 것 같으니 여기서부터 시작 하자'며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면서 일의 물꼬를 만들어 주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켜 손조롭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나는 이 친구의 이런 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지금은 친구로부터 소중한 책 선물을 받은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책에서 말하는 단순함에서 오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단순함이라는 것이 꼭 비어있는 여백이 없어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 꼭 찬 화면은 간결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계기를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나는 서관에서 동관으로 이사를 왔다. 서관에서 함께한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나의 작은 선물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새로 이사온 부서의 이삿짐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봐주러 온 후배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다. 똑 부러지는 아담한 체구의 후배 박영 간호사는 체구는 작지만 목소리는 작지 않다. 언제나 밝고 환한 성격으로 환자를 보는 눈은 예리하지만 그 마음은 따뜻하다. MICU에서 일하면서 서로 인계를 주고 받을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삶의

여명을 얼마 두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환자는 행복한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 한 사람의 삶의 끝자락을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는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워지곤 하였다. 그런 고단함을 알기에 어깨를 토닥토닥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책을 선물하고 싶었고, 인문학 책이나 에세이 보다는 소설을 더 좋아하여 [꾸베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선물하고자 한다. 이 책은 별 탈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정신과 의사 꾸베가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찾고자 여행을 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이 책이 후배 간호사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나 또한 집 근처 서점을 찾아 조용히 책을 보면서 서점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From. 김문희 UM (CCU)



To. 박영 간호사 (MICU2)

★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겨울 데이트 명소 BEST 9 & 후끈후끈 전국 온천 명소 BEST 10 ★

배미화 간호사 (SICU2 / 중환자간호팀 SPI위원회)

겨울에 춥다고 집이나 커피숍에만 들어가 있지 말고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한 편하고 실속 있는 여행을 시도해보세요. 또는 추위와 지치고 누적된 피로를 전국 온천을 누비면서 이겨내며 알차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겨울 데이트 명소 BEST 9

- 1호선: 온양온천역 "온양온천" 수도권 전철로 조금 오래 타야 되긴 하지만 온양온천지구에는 30곳이 넘는 온천장이 있고 끝자리 4, 9일마다 풍물 5일장이 서기에 함께 둘러 볼 수 있다.
- 2호선: 삼성역 "코엑스 아쿠아리움"
- 3호선: 고속터미널역 "파미에스테이션" 맛집, 카페, 디저트, 쇼핑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 4호선: 대야미역 "누리천문대" 한겨울 밤하늘의 별을 보며 힐링.
- 5호선: 올림픽공원역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2월 15일까지 운영
- 6호선: 이태원역 "그랜드 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수 천 개의 꼬마전구로 꾸며진 로맨틱 장소.
- 7호선: 독섬 유원지역 "독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09시~17시 운영.
- 8호선: 장지역 "스파 인 가든 파이프" 한증막, 토굴방 등 찜질 만끽
- 9호선: 샛강역 "63스퀘어" 아쿠아플라넷, 63아트, 전망대, 맛집 등 볼거리 먹거리 풍부.

누적된 피로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한방에 날려주는 곳! 후끈후끈 전국 온천 명소 BEST 10

- 1. 오색탄산온천: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511
 - ☞ 총 6개 테마 온천탕과 불가마로 이루어진 명소. 특 쏘는 탄산 온천과 알카리 온천을 한번에
- 2. 산방산 탄산온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981
 - ☞ 국내 최대 탄산온천으로 물 온도가 다양한 노천탕에서 즐기는 제주풍경
- 3. 테르메덴: 경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 ☞ 100%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32~35도를 유지하여 휴식을 취하기 좋다
- 4. 진안 홍삼스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4
 - ☞ 국내에서 보기 드문 홍삼 한방 스파로 야외에서 마이산을 보며 즐기는 스파도 매력~
- 5. 지리산 온천랜드: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522
 - ☞ 지리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연경관으로 유명! 100% 천연게르마늄 온천수 이용
- 6. 신북 스프링폴: 경기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 ☞ 울창한 숲에서 즐기는 이색 노천스파
- 7. 파라다이스 도고: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80-1
 - ☞ 유향 성분이 들어있는 온천, 많은 인원이 한번에 들어가도 문제없는 대형 스파!
- 8. 덕구 온천: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575
 - ☞ 국내 단 한곳 밖에 없는 자연용출온천. 액션스파, 야외노천온천, 가족 온천실로 구성
- 9. 스프링돔: 경북 경주시 북군동 30-3
 - ☞ 지하 750M에서 뿜은 천연 온천수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도 있다.
- 10. 석정 온천 휴스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 ☞ 게르마늄 온천수를 이용한 스파 시설들!

풍납동 서당

금의야행 錦衣夜行



비단 금錦 옷 의 衣 밤 야夜 갈 행 行

뚝!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다. 외견상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

예문) 그분의 논문은 네이처에 게재되었지만 학회 내부에서는 인용되지 않으니 금의야행이지. 비단 입고 밤길 다니는 기분일 것 같아